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의사소통능력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조은주¹, 임경민^{2*}

¹고신대학교 간호학과, ²춘해보건대학교 간호학과

Influence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Communication skills on Ego-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Eun-Joo Jo¹, Kyoung-Min Lim^{2*}

¹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의사소통 능력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자는 B시 2개 대학교의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4학년 학생 122명이며,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3월23일에서 3월30일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Scheffé'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평균평점이 3.40 ± 0.62 으로 중간보다 높았고, 의사소통 능력은 평균평점이 3.67 ± 0.4 으로 중간보다 높았다. 자아탄력성은 평균평점이 3.54 ± 0.58 으로 중간보다 높았다.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정도는 성별($t=2.732, p=.010$), 전공만족도($F=8.226, p<.001$), 실습 동료관계($F=11.853,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의사소통 능력,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간에는 미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r=-.168, p=.065$). 의사소통 능력과 자아탄력성간에는 중간정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593, p<.001$). 자아탄력성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는 의사소통능력, 전공만족도, 실습동료관계, 성별 순이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38.9%이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고, 전공만족도를 높이며, 실습동료와 좋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교과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communication skills on the ego-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were 122 nursing college seniors in B city who have experience in clinical practice.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23 to 30, 2015, and analyzed by the t-test, ANOVA, Scheffé'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go-resilience depending on the gender,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and relationships among fellow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go-resilience and communication skills. The meaningful variables which influence the ego-resilience were communication skills,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relationships among fellow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and gender. These factors were responsible for 38.9% of the total variance in the ego-resilience of the nursing students, and communication skills were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conclusion, to increase the ego-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effective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s and strategies to improve thei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major and relationships among fellow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Keywords : Clinical practice stress, Communication skills, Ego-resilience, Nursing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Kyoung-Min Lim(Choonhae College)

Tel: +82-52-270-0395 email: skyl0403@hanmail.net

Received January 25, 2016

Revised (1st March 10, 2016, 2nd April 4, 2016, 3rd April 22, 2016)

Accepted June 2, 2016

Published June 30, 2016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학업에만 집중하던 고등학생 시기와는 달리 각기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동료들과의 새로운 대인관계, 전공에 대한 학업적 스트레스와 취업 등으로 시행착오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성인으로서의 가치관과 정체감을 확립해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1]. 특히 간호대학생은 1학년 때는 전공과목에 대한 부담이 없이 교양과정 수강 등으로 시간과 과목 면에서 비교적 여유 있는 학업생활을 누릴 수 있지만, 2학년에서는 전공 기초과목과 전공 선택과목을 접하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뿐 만 아니라 퀴즈와 쪽지시험 등의 시험의 압박과 상당한 분량의 보고서 제출 등으로 여유 없는 대학생활을 보내야 한다. 3학년의 생활은 이론수업과 임상실습을 병행하여 학기 중 실습을 마치기 위해서는 8주 동안 2배의 강의와 8주 동안의 실습 스케줄을 감당해야 하는 엄격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또, 졸업학년은 국가고시 준비 등으로 여유 없는 생활과 국가고시 합격에 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듯 간호대학생들은 매 학년의 진급 시마다 공부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압박감을 호소하며, 실습 시에는 의식주 문제 등의 경제적 문제, 낯선 실습지에서의 환경적응과 학습목표 달성 등에 대해 부담감이 가중되어 타 전공의 대학생들보다 스트레스가 훨씬 높은 실정이다 [2-3].

우리나라는 간호교육 인증평가 기준에 의해 간호학과 교과과정에 22-24학점, 최소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대학생은 다양한 간호현장을 경험하고, 미래의 간호사로서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4-5].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임상현장이라는 낯선 환경, 실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과도한 과제, 역할 갈등, 지식부족, 현장과 이론의 괴리감, 예상치 못하는 위기상황, 환자 및 보호자와의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러한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을 때 실습이 두려워지고 간호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며, 간호학 전공에 대한 회의마저도 느끼게 되는 심각한 위축과 좌절을 경험한다 [6-7].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을 시작할 때부터 사회·심리적 사정과 대인관계 및 대화를 통한 간호중재를 훈련하며,

이런 과제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술이 필요하다.

의사소통능력이란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타인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신의 관점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 [8] 으로, 간호대학의 교육과정 중 의사소통은 전문 간호를 위해 대학교육과정에서 습득해야하는 역량중의 하나이며, 간호 교육의 핵심이다 [9-10]. 의사소통능력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의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대상자의 정서적 안정, 증상완화 및 생리적 기능의 호전에 영향을 미치며, 간호업무는 환자, 보호자, 상사 및 동료, 타 부서 직원 등의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간호사에게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11].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의사소통기술 부족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학업 및 임상실습에 대한 의욕상실과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2-14]. 이러한 간호대학생들에게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자아탄력성이라고 할 수 있다 [15].

자아탄력성(ego resilience)이란 다양한 스트레스원에 대항하여 여유 있게 적응하는 일반적인 능력으로, 좌절되는 상황 속에서도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것을 일컫는다. 즉, 도전적이거나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역경을 이겨내어 더 강해지고 더 많은 풍부함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며, 위기나 도전을 감당하고 성장하며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16].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인지적, 사회적 영역을 융통성 있게 이용하여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불안이나 우울에 대한 민감성이 높지 않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정서를 사용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회복하는 스트레스 조절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7-18].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찾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학습이나 교육에 의해 전략적으로 증진될 수 있는 정의적 개념으로 성공적 대학생활을 위한 우선적인 요소 [19] 이므로 간호교육의 측면에서 자아탄력성을 전략적으로 다룬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과 임상실습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20] 에서 자아탄력성은 감성지능과 양의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자아탄력성과 영적 안녕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21] 과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방식이 대학생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13] 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위의 연구들의 대부분이 자아탄력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양한 변수와의 관계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있었으나, 자아탄력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의사소통능력으로 연구한 논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의사소통능력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의사소통능력 및 자아탄력성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의사소통 능력,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스트레스는 임상실무 실습에 대한 불안, 공포 등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임상실습을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상태이다 [7]. 본 연구에서는 Hwang [22] 이 개발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도구를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1.3.2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이란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타인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신의 관점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8]. 본 연구에서는 Rubin [8] 의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ence Scale (ICC)를 Hur [23] 가 수정·보완한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 Scale (GICC)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1.3.3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이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역경, 고난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건들에 직면하여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다 [24]. 본 연구에서는 Block과 Kremen [25] 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측정도구(Ego-Resiliency scale)를 Yoo & Shim [26] 이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의사소통능력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B시 소재 2개 대학교의 간호학과에 학생들로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4학년 학생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 동의를 한 학생들이다. 해당학교에 본 연구자가 직접 학부장, 학과장을 방문하여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협조를 받았다. 헬싱키 선언을 준수하여 대상자의 복지가 모든 다른 이익보다 우선되는 것과 연구의 목적과 방법, 예견되는 잠재적 위험, 연구가 초래할 수 있는 불편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 익명성과 비밀보장 등에 대해 연구자가 직접 설명을 하였고, 이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 작성에는 평균 25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익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문지와 동의서를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회수하여 보관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지정된 장소에 잠금장치를 사용하여 보관하였고, 수집된 자료가 등록된 컴퓨터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연구자 외에는 접근 불가하도록 하였다. 연구 자료는 연구 완료 3년이 지난 후 설문지는 분쇄기를 사용하여 파쇄할 것이고,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및 자료는 영구 삭제할 것이다.

표본 수를 계산하기 위해 G*power 3.1.2.9 program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α) 0.05, 검정력($1-\beta$) 80%, 효과의 크기(γ)를 중간크기인 0.15, 예측요인을 10개로 두어 산출하였을 때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표본의 크기는 118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13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자료수집 결과 128부가 수거되었으나, 불실성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12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 1)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간호대 4학년 학생
- 2)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

2.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대상자의 제 특성 8문항, 임상실습 스트레스 39문항, 의사소통능력 15문항, 자아탄력성 14문항으로 총 7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3.1 임상실습 스트레스 측정도구

임상실습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Hwang [22] 이 개발한 임상실습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39개 문항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1점)’에서 ‘아주 심하게 느낀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Hwang [22] 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5$ 이었다.

2.3.2 의사소통 능력 측정도구

의사소통능력 측정도구는 Rubin [8] 이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ICC)에서 제시한 8가지 의사소통 능력 구성개념에 Hur [23] 가 7가지 개념을 합하여 수정·보완한 포괄적인 대인 의사소통 능력 척도(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

Scale, GICC)이다. 본 도구는 총 15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이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환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Hur [23] 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2$ 이었으며, 본 연구에는 Cronbach's $\alpha=.83$ 이었다.

2.3.3 자아탄력성 측정도구

자아탄력성 측정도구는 Block과 Kremen [25] 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 Resilience scale, ERS)를 Yoo & Shim [26] 이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4문항으로, 대인관계 3문항, 호기심 5문항, 감정통제 2문항, 활력 2문항, 낙관성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Yoo & Shim [26] 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9$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1$ 이었다.

2.4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기간은 2015년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이었다. 자료수집방법은 B시 소재 2개의 대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본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정보수집과 연구 참여에 동의를 얻은 후, 자기기입법에 의해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게 한 후 수거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의사소통 능력, 자아탄력성 정도는 평균, 평균평점,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 및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의사소통 능력, 자아탄력성 정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제 특성

대상자의 제 특성 중 성별은 여자가 99명(81.1%), 건강상태는 양호가 75명(61.5%), 학업성적은 3.0~3.5가 66명(54.1%)으로 가장 많았다.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76명(62.3%), 실습병원 개수는 5개 이상이 65명(53.3%), 임상실습 만족도는 보통이 67명(54.9%), 실습동료관계는 좋음이 78명(63.9%), 실습지도자는 수간호사 및 책임간호사가 74명(60.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3.2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의사소통 능력, 자아탄력성 정도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평균이 139.59±25.30, 평균평점이 3.40±0.62으로 중간보다 높았고, 의사소통 능력은 평균이 55.11±7.3, 평균평점이 3.67±0.4으로 중간보다 높았다. 자아탄력성은 평균이 49.57±8.07, 평균평점이 3.54±0.58으로 중간보다 높았다. 자아탄력성의 하부영역에서는 대인관계영역(3.75±0.6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활력영역(3.59±0.76), 감정통제영역(3.50±0.76), 호기심영역(3.46±0.76), 낙관성영역(3.41±0.87)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3.3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정도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정도는 성별(t=2.732, p=.010), 전공만족도(F=8.226, p<.001), 실습동료관계(F=11.853,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자가 여자보다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

Table 1. Degree of ego resilie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22)

Variables	classification	n	%	ego resilience			
				M±SD	t/F	p	scheffe's
Gender	Male	23	18.9	53.22±6.86	2.732	.010**	
	Female	99	81.1	48.72±8.12			
Health status	Good	75	61.5	50.36±8.53	2.991	.054	
	Moderate	40	32.8	47.33±6.56			
	Bad	7	5.7	53.86±8.53			
School record	below 3	21	17.2	48.52±9.14	1.342	.264	
	3.0~3.5	66	54.1	50.48±7.59			
	3.5~4.0	25	20.5	47.20±7.94			
	above 4.0	10	8.2	51.60±8.76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High ^a	76	62.3	51.74±7.96	8.226	.000***	a>b
	Moderate ^b	40	32.8	46.13±6.38			
	Low ^c	6	4.9	45.00±10.83			
Number of hospital in clinical practice	4 and less	57	46.7	49.84±8.37	.352	.726	
	5 and more	65	53.3	49.32±7.85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High	41	33.6	51.54±9.88	2.046	.134	
	Moderate	67	54.9	48.81±6.54			
	Low	14	11.5	47.43±8.25			
Relationship between practice colleague	Good ^a	78	63.9	51.71±7.24	11.853	.000***	a>b,c
	Moderate ^b	38	31.1	46.84±6.60			
	Bad ^c	6	4.9	49.57±8.07			
Leader of clinical practice	Head or charge nurse	74	60.7	49.36±7.90	-.335	.738	
	nurse	48	39.3	49.88±8.40			

*: p<.05, **: p<.01, ***: p<.001

타났으며, 사후검정 결과, 전공만족도가 높은 군이 보통인 군보다 자아탄력성이 높았고, 실습동료관계가 좋은 군이 보통이거나 나쁜 군보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3.4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의사소통 능력, 자아탄력성의 관계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의사소통 능력,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간에는 미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r=-.168, p=.065$).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의 하부영역인 감정통제 영역($r=-.235, p=.009$)과 낙관성 영역($r=-.203, p=.025$)과는 미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감정통제가 잘되지 않으며, 낙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능력과 자아탄력성간에는 중간정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593, p<.001$). 즉 의사소통 능력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은 자아탄력성의 하부영역인 대인관계영역($r=.535, p<.001$), 호기심영역($r=.397, p<.001$), 감정통제영역($r=.386, p<.001$), 활력영역($r=.587, p<.001$), 낙관성영역($r=.413,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중 대인관계, 호기심, 감정통제, 활력, 낙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3.5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들 중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의사소통능력과 대상자의 제 특성 중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성별, 전공만족도, 실습동료와의 관계를 가변수(dummy variables) 처리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독립변수의 다중 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값과 VIF값 및 Durbin-Watson값을 산출하였다. 공차한계값은 0.875~0.990에, VIF값은 1.063~1.143에 분포되어 있어 공차한계가 0.1 이하이거나 VIF값이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

Table 2. Degree of Clinical practice stress, Communication skills, Ego resilience

(N=122)

Variables	Item No.	Mean±SD	Range	Average Mean±SD	Range
Clinical practice stress	39	139.59±25.30	39-195	3.40±0.62	1-5
Communication skills	15	55.11±7.37	15-75	3.67±0.49	1-5
Ego resilience	14	49.57±8.07	14-70	3.54±0.58	1-5
human relation	3			3.75±0.66	1-5
curiosity	5			3.46±0.76	1-5
emotional control	2			3.50±0.76	1-5
vividness	2			3.59±0.76	1-5
optimistic view	2			3.41±0.87	1-5

Table 3. Correlation among Clinical practice stress, Communication skills, Ego resilience

(N=122)

Variables	Ego resilience					
	Total	human relation	curiosity	emotional control	vividness	optimistic view
	r(p)	r(p)	r(p)	r(p)	r(p)	r(p)
Clinical practice stress	-.168(.065)	-.009(.920)	-.125(.169)	-.235(.009)	-.095(.296)	-.203(.025)
Communication skills	.593(.000***)	.535(.000***)	.397(.000***)	.386(.000***)	.587(.000***)	.413(.000***)

*: p<.05, **: p<.01, ***: p<.001

Table 4.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Ego resilience with Predictor variables

(N=122)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20.57	3.42		6.01	<.001**
Communication skills	.46	.064	.44	7.22	<.001**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3.07	.853	.21	3.60	<.001**
Relationship between practice colleague	3.18	1.05	.18	3.01	.003**
Gender	2.79	1.15	.14	2.43	.016*

Adj.R²= .389, F=31.19, P<.001

*: p<.05, **: p<.01, ***: p<.001

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2.102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31.19, p<.001), 모형의 수정된 결정계수(R²)는 .389으로 전체 설명력이 38.9%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의사소통능력($\beta=.44$) 이었고, 의사소통능력의 설명력은 30%이었으며, 다음으로 전공만족도($\beta=.21$), 실습동료 관계($\beta=.18$), 성별($\beta=.14$) 순이었다 [Table 4]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의사소통 능력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평점이 3.40±0.62(척도범위: 1-5)으로 중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로 측정된 황성자 [7]의 연구결과(3.56±0.46)보다 조금 낮았고, Yang & Moon [27]의 연구결과(3.45±0.59)와 유사하였고, 4점 만점을 기준으로 측정된 Shin & Park [28]의 연구결과(2.80±0.33)와도 유사하였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중간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임상실습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학생들은 임상실습현장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 및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등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실습 시 부과되는 과도한 과제와 임상에서 만나는 간호사와의 관계의 어려움, 여유 없는 실습일정, 이론과 실

습의 괴리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7] . 따라서 임상현장지도자나 실습지도교수는 적절한 과제의 내용과 양을 제시하고, 임상현장에서 간호사 및 현장지도자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도록 하며, 임상현장의 환경이 실습에 적합한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대처하는 등의 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정도는 평균 평점이 3.67±0.49(척도범위: 1-5)으로 중간보다 높았다. 이는 같은 도구로 측정된 Lee [29]의 연구결과(3.60±0.42점)와 유사하였고, Park & choi [14]의 연구결과(3.56±0.48) 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 결과를 볼 때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의사소통 능력은 간호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할 핵심역량 중의 하나로 더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능력을 성취하기 위한 방안이나 교과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정도는 평균평점이 3.54±0.58(척도범위: 1-5)으로 중간보다 높았다. 이는 같은 도구로 측정된 Jeong [20]의 연구결과(3.57±0.45)와 유사하였다. 또, 같은 측정도구이나 4점 만점을 기준으로 측정된 Shin & Park [28]의 연구결과(2.80±.33)와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의 하부영역에서는 대인관계 영역(3.75±0.6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낙관성 영역(3.41±0.87)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로 측정된 Shin & Park [28]의 연구에서 대인관계 영역이 가장 높았고, 낙관성 영역이 가장 낮은 것과 유사한 결과이었다. 그러나 다른 도구로 측정된 Ji 등 [30]의 연구결과에서는 낙관성영역이 가장 높았고, 감정통제 영역이 가장 낮았다. 이는 자아탄력성을 측정하는 도구의 차이에 의한 것과 연구대상자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

로 보여진다. 즉, 본 연구와 Shin & Park [28]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3,4학년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나, Ji 등 [30]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못한 1,2학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 학생들은 대인관계 영역에서 자아탄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대인관계란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의사소통방식이다 [29].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직접적으로 환자와의 접촉 및 임상현장에서 만나는 지도자인 간호사와 타 부서의 의료인 등 다양한 대인관계에 대한 훈련이 쌓여 대인관계에 대한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낙관성이란 자신이 겪는 실패는 일시적인 것이며, 역경에 맞서 견뎌내며 다음 행동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믿음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낙관성 영역에서 자아탄력성이 가장 낮은 것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및 실습에 대한 부담이 크며, 특히 4학년인 경우 국시 공부와 취업 등의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가중되어 낙관성 영역이 가장 점수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임상현장에서 아픈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하면서 그들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 불안 등의 정서가 낙관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중재방안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제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정도는 성별, 전공만족도, 실습동료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전공만족도가 높은 군이 보통인 군보다, 실습동료관계가 좋은 군이 보통이거나 나쁜 군보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는 Park & Lee [31]의 연구에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단순히 성별에 따른 차이라기보다 남학생들 중 고학년들은 이미 군대를 갔다 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많아 스트레스 상황과 위기극복에 잘 대처하는 능력이 있음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는 추후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전공만족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는 Shin & Park [28]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와 실습만족도가 높은 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고, Ji 등 [30]의 연구에서도 전공만

족도가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변수임이 규명되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실습동료관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는 다른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웠지만 간호대학의 임상실습이 팀 단위로 이루어지며, 팀별과제 등 팀 활동위주의 실습이 진행되므로 실습동료와의 관계가 자아탄력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사료된다. 위의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좋은 실습동료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간에는 미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Jeong [20]의 연구와 Cho [32]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과 같은 결과이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의 하부영역인 감정통제영역과 낙관성영역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미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즉,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감정통제가 잘되지 않으며, 낙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는 분노,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가져오며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나쁘다고 보고되고 있다 [33]. 따라서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높은 학생들을 스크리닝하여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개별상담과 개별지도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자아탄력성 간에는 중간정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의사소통 능력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Ji 등 [30]의 연구에서도 의사소통능력과 자아탄력성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의사소통능력은 자아탄력성의 5개 하부영역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의 대인관계, 호기심, 감정통제, 활력, 낙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교과과정의 개발과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의사소통능력, 전공만족도, 실습동료 관계, 성별 순이었고, 전체 설명력은 38.9%이었다. 자아탄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능력은 간호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할 핵심역량 중의 하나로 간호사 뿐 만 아니라 미래의 간호사가 되기 위한 간호대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간호학문의 특성의 고려할 때 치료적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무중심의 효율적인 다양한 학습방법과 학습전략이 필요하다. 이론과 실습교과목에서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방법으로 문제해결학습을 들 수 있는데, 문제해결학습방법은 지식, 태도, 사고와 판단 및 의사소통 기술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으며 토론 및 발표수업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실제 상황 중의 한 인물로 등장하여 연기를 하면서 실제 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입장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상황분석을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방법인 역할극 및 다양한 토론의 장을 펼칠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 패널토의, 심포지엄 등도 효율적인 의사소통기술과 능력을 함양시키는 교육방법이라 할 것이다.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전공만족도를 들 수 있는데 학업 부진 학생들을 위한 튜터링 제도와 학교생활의 적응을 위해 지도교수와 의 상담 및 선배들 간의 멘토링 등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잘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인 실습동료 관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임상실습은 팀 위주의 교과로 구성원들이 비전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체계를 갖추며, 상호작용함으로써 성과를 달성하는 학습이다. 그러므로 실습동료와의 관계는 임상실습교과목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팀 과제 등은 실습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러나 동료의식이 없으면 팀원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는 관계로 실습 팀의 구성 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무임승차하는 학생들에 대한 관리와 함께 동료평가 등을 통해 팀과제 및 팀 활동에 대한 변별력 있는 평가와 피드백이 주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의사소통능력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정도는 성별, 전공만족도, 실습동료관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의사소통 능력과 자아탄력성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중간정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사소통능력, 전공만족도, 실습동료관계, 성별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방법의 활용과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실습 동료와의 좋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교과 프로그램 및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개지역의 2개 대학의 간호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의 결과를 확대해석하거나 일반화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과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논문이 부족한 관계로 후속연구를 통해 자아탄력성 관련요인과 효과에 대한 검증이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References

- [1] H. J. Park, I. S. Jang.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6 No.1, pp.14-23, 2010.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0.16.1.014>
- [2] N. H. Cha, "The Relationships between Stress and Health Locus of Control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19 No.2, pp.177-185, 2013. DOI: <http://dx.doi.org/10.14370/jewnr.2013.19.2.177>
- [3] J. S. Yoo, Y. J. Jang, E. K. Choi, & J. W. Park, "Developing a stress measurement tool for Kore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8 No.3, pp.410-419, 2008. DOI: <http://dx.doi.org/10.4040/jkan.2008.38.3.410>
- [4]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Accreditation concordance(For Baccalaureate degree nursing program).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2012.
- [5] Min Ah. Park, "Self-Leadership, Stress on Clinical Practice, and Stress coping styles in Nursing Students", College of Nursing Graduate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2009.
- [6] B. S. Park, "Stress and satisfaction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by sex role identity amongnursing students", Graduate School of Kwandong University, 2009.

- [7] S. J. Whang,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2 No. 2, pp.205-213, 2006.
- [8] Rubin, R.B. "Communication competence", In G.M. Phillips & J. T. Wood(Eds.), *Speech Communication: Essays to Commemorate the 75th anniversary of the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pp.94-129, 1990.
- [9] Jane, E. Diers.. "Assessing and appraising student's professional communication". Illinois state university, California, 2008.
- [10] Y. J. Oh,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the Communication Empowerment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based on the Theory of Transfer of Learn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2008.
- [11] H. J. Kwon, "Nurses's Experiences of Verbal Abuse in Hospital Setting", *The Korean nurse*, Vol.46 No.1, pp.34-39, 2007.
- [12] H. J. Kwon, M. J. Kim, "The Current Status of Psychiatric Clinical Nursing Practicum in Korean Baccalaureate Nursing Progra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Mental Health Nursing*, Vol.14, No.4, pp.438-448, 2005.
- [13] K. S. Han, Y. J. Park, K. M. Kim, Y. J. Oh, J. H. Jin, H. C. Kang, "Communication Style, Self Efficacy, Emotional Regulation, and Ways of Coping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17 No. 1, pp.28-34, 2008.
- [14] J. W. Park, M. S. Choi, "A Study on Self Consciousnes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18, No.3, pp.351-360, 2009.
- [15] J. A. Park, E. K. Le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17 No.3, pp.267-276, 2011.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1.17.3.267>
- [16] Block, J. & Block, J. H.,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Collins,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13, pp.39-101, 1980.
- [17] Tugade, M. M., & Fredrickson, B. L., "Resilient individuals use positive emotions to bounce back from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86 No.2, pp.320-333, 2004.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86.2.320>
- [18] H. S. Jang, "Psychopathology as a factor of blocking the resilience",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4, No.1, pp.113-127. 2001.
- [19] W. J. Park,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Learning Styles, and Academic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 Korea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 Vol.18, No.3, pp.240-250, 2009.
- [20] G. S. Jeong,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Ego-resiliency and the Stress on Clinical Practices", *Korean Journal of Care Management*, Vol.10, pp.165-183, 2013.
- [21] S. Y. Yun, S. H. Min,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piritual well-being on College adjustment in major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12, 2014.
- [22] S. J. Whang,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tool for the nursing student's clinical stress", *Journal of the Margaret Pritchard College of Nursing*, Vol.14 No.1, pp.35-54. 2002.
- [23] Gyeong-Ho Hu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47 No.6, pp.380-426, 2003.
- [24] Newman, R. APA's resilience initiative.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Vol.36 No.3, pp.227-229. 2005.
DOI: <http://dx.doi.org/10.1037/0735-7028.36.3.227>
- [25] Block, J., & Kremen, A. M., IQ and ego 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stress on negative m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0, pp.349-361, 1996.
- [26] S. K. Yoo, H. W. Shin,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16 No.4, pp.189-206, 2002.
- [27] Nam Young. Yang, Sun Young. Moon,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Admin*, Vol.17 No.2. pp.227-229, 2011.
- [28] Eun Jeong. Shin, Young Sook. Park,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11, pp.5636-5645,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11.5636>
- [29] Jae Kyung. Lee, "The Relationships among Clinical Competence, Clinical Practice Stress, Communication Skill & Nunchi in Nursing Students", *College of Nursing Graduate School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15.
- [30] Eun Joo. Ji, Mi Ran. Bang, Hye Jin. Jeon, "Ego Resilience, "Communication Ability and Problem 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Vol.19 No.4, pp.571-579, November,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4.571>
- [31] Jin Ah. Park, Eun Kyung. Le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Admin*, Vol.17 No.3, pp.267-276, 2011.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1.17.3.267>
- [32] Jin Hui, Cho,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2013.
- [33] G. O. Park, Y. S. Kim, "Stress of Clinical Practice, Self-concept,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5 No.4, pp.2149-2163, 2013.

조 은 주(Eun-Joo Jo)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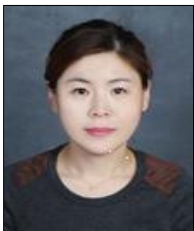
- 2000년 8월 : 고신대학교 보건학
원 보건과학과 (보건학석사)
- 2004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 (보건학박사)
- 2005년 1월 ~ 2007년 12월 : 한
국보건교육협회의 부산지부 사무
국장
- 2012년 3월 ~ 현재 : 고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지역사회간호, 보건교육, 국제간호, 간호선교

임 경 민(Kyoung-Min Lim)

[정회원]



- 2008년 9월 : 고신대학교 보건과
학과(의료경영 전공) 석사
- 2012년 2월 : 고신대학교 보건과
학과(의료경영 전공)박사
- 2016년 3월 : 고신대학교 간호학
박사 과정
- 2015년 3월 ~ 현재 : 춘해보건대
학교(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지역사회간호학, 간호인사관리, 의료경영, 의료서비스 마케팅